

유아의 단어와 표현상의 특징*

장경희 · 이준희 · 권우진

(한양대학교 · 경기대학교 · 한국교육문제연구소)

<Abstract>

Chang, Kyung-Hee, Lee, Joon-Hee & Kwon, Woo-Jin. 2004.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Words and Expressions. *Korean Semantics*, 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s 12 to 23-month-year-old infants used their vocabulary in their language development stag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lexicon is the small number of their words and semantic feature that they perceive and apply. In addition to the small pool of vocabulary, the fact that they use the semantic feature of it in designating or describing every object or situation in their everyday lives makes the extension of each word expand, accordingly. This characteristic was discussed as 'undifferent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aning. Considering the number of linguistic forms that infants have and the semantic feature they use, the scope of their extension seems wide. This explains why they say 'Grandma' to call 'Aunt' and 'Milk' instead of 'Juice,' forcefully applying their words to the given objects. That is not just a mistake made without their knowing, but rather a unique phenomenon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their language acquis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uses of words according to their meanings can be summarized with the 'undifferentiation' due to the fundamental lack of semantic features. As a result, they show many distinctive events in expression such as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74-AM105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multifunctionality, confusion with the perception of parts of speech, overuse of the words mimicking sound and shape, and categorization.’

핵심어: 유아어, 언어습득, 발달, 어휘 사용, 미분화, 인지, 자질 습득, 외연 확장, 의성, 의태, 사물어, 사태어, 범주화 등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12개월부터 23개월 유아들의 언어발달 단계에 나타나는 어휘 사용 방식을 살피는 것에 있다.

유아들의 언어 사용 양상은 흥미로워서 언어를 연구하는 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가까운 대상 한 두 명을 때때로 관찰하는 것은 간단해도 그들 성장 과정의 일부 기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국내의 연구 형편상 성장 시기를 같이 하는 다수의 아동을 남녀 비율을 맞추어 주기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은 유아의 언어 습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나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초기 단계에 속하는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의 유아 14명(남아 7명, 여아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녹음은 2002년 9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 한 달에 네 차례에 걸쳐 1주일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의 어머니가 유아들의 최적 대화 상황을 선택하여 가정에서 60분 가량의 녹음을 하고, 매 녹음 시작 후 50개의 발화에 한정하여 전사하고 분석하였다.¹⁾ 분석에 있어 12-23개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 대상자 안에서 다시 개월별 하위발달 단계를 언급하지 못한 것은 아동마다의 발달 속도에 많은

1) 고유정보 보호 취지에 따라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공간은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실내로 하고, 가급적 유아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낮 시간대로 하여 녹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편차가 있어 우선 12-23개월을 유아 언어의 발달 초기로 보고 이를 하나의 단계로 간주하여 그 특성을 보기로 한 것이다. 논의 대상은 아동의 표현을 청자인 어머니가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유아들의 어휘부가 갖는 특징을 어휘수, 의미, 외연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낱말 사용상의 특징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2. 유아 단어의 특징

2.1. 어휘 수

언어 형식을 갖춘 발화에 미숙한 유아들은 ‘응’, ‘으’, ‘음’, ‘아’, ‘어’ 등 음운자질 변별단계로 발전하기 전의 형태를 많이 발화하는데 이들은 음성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문맥 안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으로서의 감탄사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곧 유아들이 사용하는 한 숨의 발화는 곧 하나의 낱말이 되기도 하고 문장이 되기도 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내기 연습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10개월 정도가 되면 ‘까까, 물’ 등 비교적 맥락에 덜 의지하는 완성된 형태의 어휘 출현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한 단어 한 단어 습득해나가면서 그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23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어휘의 수 측면에서는 상당시기까지 성인 언어와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12개월 된 유아가 구사하는 어휘는 ‘까까, 물, 엄마’로 총 3개이고, 13개월 된 유아들의 경우는 ‘아빠, 엄마, 우유, 어부바, 이다, 싫다, 하다, 안, 남남남, 빨리, 네, 아, 어, 으, 응’ 등의 15개 어휘를 발화하며, 14개월 된 유아들의 경우는 ‘고기, 과자, 꼬까, 꽃, 맘마, 머리, 멍멍이, 반짝, 빠방, 싫다’ 등 총 33개의 어휘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일반 성인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가 5,000개라고 할 때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개수의 어휘만을 발화하는 것이다.³⁾ 전문어를 사용하는 활동영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단어수는 개인별 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유아들의 경우는 각 개인 간 일상적 사용 어휘수의 상대비율 차가 상당히 크다. 동일한 시기 곧 생후 14개월째의 아동들끼리라 해도 일상 생활에서 구사하는 어휘의 수는 31개, 26개, 25개, 14개, 4개와 같이 다양한 수준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각 유아가 이해하고 구사하는 어휘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른바 ‘폭발현상’(vocabulary spurt)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유아들이 형식의 감을 잡기 시작하면서 머리 속에 축적되었던 개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의미습득과 형태습득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⁴⁾

2.2. 의미

세계에 대한 경험량에 있어 無에서부터 시작하는 유아들은 오감을 통해 만나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거나 지극히 한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대상에 대한 체험적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와 관련한 낱말의 의미자질 습득량도 많아지게 된다.

단어의 의미는 개념적 의미자질들의 결합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아들이 특정단어를 사용한다 해도 그 단어의 의미자질 묶음을 처

2) 아동들은 11세 이후가 되어야 성인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고 생후 5~6년 사이에 모국어를 거의 완전하게 배운다. 하길종(2001:60-64) 참조.

3) 임지룡(1991:90), 오미정(1998:4)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언어들의 총 어휘수가 약 50만이라고 할 때, 일반 성인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할 때 구사하는 어휘 수가 1,000개 정도면 2/3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5,000개 정도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희수·임지룡 역(1993:7-9)에서는 교육받은 일반 성인이 알고 있는 어휘수는 최소 5만개 정도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4) 수용언어 차원에서의 어휘 폭발은 대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정도로 본다. 이승복역(2002:281) 참조.

음부터 모두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⁵⁾ 몇 개의 어휘에 대해서는 유아들이 확실히 습득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조차도 성인이 이해하고 있는 의미와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때가 있다. ‘엄마’를 예로 들면, 성인들이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의미는 [+성인, +여성, +결혼,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돌 안팎의 유아들이 ‘엄마’라는 낱말에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의미는 [+가장 많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가장 자주 나의 칭얼거림을 받아주는 사람, +가장 많이 안아주는 사람, +매번 우유를 주는 사람,...]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곧 경험량이 절대적으로 다른 성인과 유아가 지닌 단어의 의미가 처음부터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사 ‘가다’의 경우도 유아가 함께 가자는 의미로 “가.”라고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집에 가다’에서의 <가다>¹와 ‘시간이 가다’에서의 <가다>², ‘맛이 가다’에서의 <가다>³ 의미를 아울러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적어도 <성질·상태의 변화>에 속하는 <가다>³보다는 <공간적 이동> 차원의 <가다>¹를 먼저 습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 확인된다. 대부분의 낱말들은 다의성(polysemy)을 갖는데 이렇게 의미의 습득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질에 따라 어떤 단계를 가지고 진행되어 간다. 때문에 유아들은 구체적이고 구상적인 의미자질의 습득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5) 본고에서는 유아어의 경우는 유념하는 의미자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다양한 어휘 사용 양상들이 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적은 의미자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성인 언어와 유아어의 차이는 성인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아동의 경우는 인지 및 언어사용 양식의 변화 과정상 그렇게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명사의 경우는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자질이 많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누군가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 그에 관한 언급을 하고 싶을 때, 대상에 대한 속성 정보가 미약한 경우에는 대상의 특징으로 삼을 만하면서 당장에 수집될 수 있는 정보 한두 가지 속성(대개 시청각적으로 돋보이는 특징이 선택)을 가지고 환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반대로 대상의 이름을 들어 ‘영아가/선영이가 온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는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의 의미자질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 한편으로는 정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어휘선택이 된다.

2.3. 외연

유아어의 외연은 보유하고 있는 단어의 수가 성인의 것에 비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먼저 언어형태와 외연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감으로써 경험하고 지각하는 대상과 움직임, 상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어의 수보다 많다. 아직 언어규칙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경험세계 안으로 들어온 각각의 대상과 움직임 그에 대한 느낌과 평가 각각에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곧 그들이 습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언어형태의 양이 지각하는 대상과 움직임 및 상태의 양을 모두 감당해내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물론 성인의 경우도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경험세계에 대한 각종 개념의 수가 보유하는 단어수를 훨씬 넘어서지만 이 경우는 대상의 자질에 대한 종합과 분류를 거쳐 범주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유아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낱말의 의미와 외연과의 관계를 보면 단어 사용에 있어 적용하는 의미자질의 양에 견주어 적용의 외연 폭이 넓다. 이제 막 습득하여 부러뜨게 된 단어에 있어서도 유아어 나름의 특징이 발견된다. 곧 단어를 갖추었다고 하나, 성인이 일반적으로 떠올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의미자질의 묶음으로서가 아니라 풍부하지 못한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의미자질 몇 개에 기대어 사용하기 때문에 낱말의 무리한 적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고모’를 ‘할머니’라고 하고, ‘주스’를 ‘우유’로 하는 등 적용의 오류나 범주화의 오류가 빚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6) J.S.Mill(1970:44-64), G. Frege(1975:116-28) 등 초창기 의미(meaning)의 개념을 규정하는 논의들에서는 ‘지시’를 외연(denotation, extension)으로 보고, ‘의의(sense), 속성(property)’은 내포(connotation, intension)로 규정하였다. 이익환(1998:11,26) 참조. Schwarz · Chur(1993, 문미선 외역1999:274)는 명사의 외연은 명사가 지시하는 개체이고 술어의 외연은 그 술어가 적용되는 개체들의 집합이며 문장들의 외연은 진리치로 보았다.

이렇게 언어형태의 수와 각 단어가 지닌 의미자질의 수, 그리고 유아의 경험세계와 관계하는 외연의 수 사이에 존재하는 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형 태	의 미	외 연
유아	보유 개수 적음	의미 자질의 미습득으로 의미가 상세화되지 못함	한 단어로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가 흔히 성인에 비해 확장됨
성인	보유 개수 많음	충분히 습득되어 상세화됨	한 단어로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표 1.>

유아의 외연영역이 확장된 현상은 흔히 ‘의미확장’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아의 의미특성은 ‘의미확장’이 아니라 아직은 불충분한 의미로 세계를 표현하는 데서 ‘의미사용의 확장’이나 ‘외연의 확장’ 현상으로 설명된다.

3. 유아의 표현법상의 특징

유아의 표현상 특징을 살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아들의 단어 의미상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의미자질 불충분에 의한 미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유아들은 성인과는 달리 습득하고 있는 어휘 수가 단순하기도 하거니와 단어의 의미나 외연도 불충분하게 습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성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성인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유아의 표현상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3.1. 맥락의존 표현법

초기 유아들의 표현은 맥락 의존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아들은 대부분이 어휘의 의미자질 가운데 일부만을 습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의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의사전달이 맥락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맥락 의존 표현은 명사의 단독적인 사용 양상에서도 살필 수 있다. 실제 자료를 통하여 ‘엄마’라는 표현이 지닌 의사소통 기능을 예시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가. 엄마 {빵을 먹는 중 더 달라고 엄마를 부름. 엄마는 “다 먹고”라고 대답함} (13개월)
 - 나. 엄마 {엄마가 과자를 주려고 하는데, 빨리 달라고 칭얼냄} (13개월)
 - 다. 엄마 {아이가 베개를 계속해서 달라는 기세로 ‘엄마’를 부르는 상황이고 엄마는 “젓었어”라고 응대함} (15개월)
 - 르. 엄마 {책을 엄마보고 가져오라고 함} (18개월)
 - 미. 엄마 {열쇠로 자전거를 고친 후, ‘이젠 엄마가 하라는 듯이 말함} (18개월)
- (2) 가. 엄마 {“어디 갈 꺼야?”라고 물음} (16개월)
 - 나. 엄마 {“그거 뭐야?”라고 물음} (16개월)
 - 다. 엄마 {엄마가 “아저씨가 뭐 찾냐고요?” 물어보자 말함} (17개월)
- (3) 가. 엄마 {“엄마 까스 불 끄고 와요.”라는 엄마의 말에 아이가 반응을 보임} (16개월)
 - 나. 엄마 {엄마가 “자.”라고 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유아가 발화한 것이고, 아이의 대답에 엄마는 “뭐 아니야?”라고 다시 응대 함} (18개월)⁷⁾

(1)은 ‘엄마’라는 명사를 부름말로 사용하여 엄마에게 요구나 명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예이다. (2)에서는 여러 질문의 ‘엄마’라

7) 자료에 대한 정보 제시는, 표준어를 [] 안에, 의미는 { } 안에, 개월은 () 안에 각각 표기하였다.

는 호칭으로 응대를 하고 있고, (3)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에 적절한 반응을 ‘엄마’라는 호칭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엄마’라는 하나의 호칭어가 요구, 의도 표현, 동의, 거부 등 다양한 의사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가 가장 빨리 습득하는 어휘가 ‘엄마’인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발화되는 ‘엄마’나 ‘아빠’는 <부모>[+parents]라는 의미를 지니고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의미없는 발음연습에서부터 상황 맥락에 따른 수많은 기능의 신호로 사용되다가 점차 변별적 의미자질이 추가된 <부모>[+parents] 개념을 익혀나간다.⁸⁾ [+parents]의 의미를 어느 정도 습득한 단계에서도 유아가 사용하는 ‘엄마’, ‘아빠’는 맥락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며 그 정보의 수는 무한하다.⁹⁾ ‘엄마’라는 호칭어를 통하여 상대방인 어머니의 주의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요구나 의도를 충족시키고 있다.

유아의 맥락 의존적 표현법은 지시어로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유아들은 ‘이거’나 ‘여기’와 같은 대명사를 상당히 이른 시기에 습득하는 편이며, 사용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이 어휘가 어휘 습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8) ‘대상이 기호로 표상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내적 상태가 표현되는 징표와 듣는 이에게 호소되는 신호와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심재기의 1996:23)’는 전제 하에 어휘적 실현으로 판단되는 ‘엄마’, ‘아빠’의 출현수를 세어 보았다. 12개월의 경우 92%(38개 어휘 중 33개)이다가 23개월에는 12%(970개 어휘 중 120개)로 현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이들 어휘가 부담하는 의미부담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암시한다. 각 상황맥락에 사용된 호칭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담량은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단어 발화기의 각 단어에 얹혀진 운소자질(길이, 세기, 높낮이)은 성인이 무심코 해석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의미 정보를 지니게 된다.

9) {(배게/우유/...)를 주세요, (과자/...) 더 주세요, 어디 가세요?, -지 마세요, 이것/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무서워요, 엄마가 하세요/해 주세요, 엄마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 주세요, 재미있어요, 싫어요,...} 등 유아는 수많은 상황맥락에서 ‘엄마’ 또는 ‘아빠’라는 낱말 하나로 다양한 의사를 전달한다. 유아의 요구 화행에 대해서는 장경희·김정선(2003) 참조.

사용이 간편한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물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칭이나 어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응 표현이기 때문이다. 유아 발화에서 '이거'의 쓰임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가. 이거. {엄마가 “일어났다.”라고 응대함} (21개월)
나. 이거. {엄마가 이어서 “또?”라고 물어 봄} (21개월)
다. 이거. {엄마가 “뭐?”라고 묻는 말로 대답함} (21개월)
르. 이- 이거. {엄마와 병원 놀이를 하고 있음 엄마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발화함} (22개월)
미. 이거? {엄마에게 물건을 건네주면 하는 말인 듯함. ‘이거 있어요’라는 의미로 전달} (23개월)
- (5) 가. 이거-?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물음. 엄마가 “왜?”라고 응대함. ‘이것은 뭐예요’라는 의미로 전달} (23개월)
- (6) 가. 이거 {엄마가 “꿈 어땀지?” 하자 발화함} (19개월)
나. 이거, 이-거, 이거. {“옳지? 또?”라고 물음} (21개월)
다. 이거? {“뭐?”라고 묻자 아이가 대답을 함} (22개월)
르. 이거. {“윤경이 뭐해?”라고 물음} (22개월)
미. 이거? {“뭐?”라고 묻자 아이가 대답을 함} (22개월)
- (7) 가. 이거-! {‘이거 하자’는 청유 억양으로 발화함} (22개월)

‘이거’라는 지시 표현을 통하여 (4)과 같이 다양한 진술 표현을 하기도 하고, (5)의 질문, (6)의 응답, (7)의 청유 등 다양한 의미를 드러낸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유아의 맥락에 따른 전형적인 표현 방식을 살펴 수 있다.

이밖에도 유아들의 맥락 의존적 표현법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어휘들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가령, 엄마가 “○○이가 아까 엄마한테 왜 그렇게 때를 썼어?”라고 하자 “까까.”{까까 달라고 했어요}(22개월)라고 대답하거나, 엄마가 “○○아 뭐하니?”라고 하자 “차.”{차 찾아요}(22개월)라고 답하는 경우, ‘쉬 했어요{오줌 났어요}’라고 할 것을 “시시.”(22개월)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엄마가 “○○이 벌써 잘래? ○○이 벌써 잘 거야? ○○아, 뭐해요?”라고 하자 “코.”{코 잘래요}(22개월) 라는 말로 대신하거나, “오늘 ○○이 뭐하고 놀았어?”라는 물음에 “책.”{책 읽으면서 놀았어요}(22개월)이라는 식으로 하나의 어휘를 통하여 다양한 표현 의도를 드러낸다.

3.2. 소리·모양 표현법

유아들은 사물이나 동작에 관하여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의성 의태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어휘가 습득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떤 사물이나 동작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들의 감각, 인지, 신체 등 영역의 성장 단계와 상관이 있는 듯하다. 유아들의 사물지시 표현에 촉각이나 미각과 관련한 것보다는 소리나 모양 등의 감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 사물 표현과 사태 표현으로 나누어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사물 표현에 의성·의태어를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 (8) 가. 멍멍<개> {책 속의 개를 보며 엄마가 “이건 뭐지?”하고 묻자 대답} (14개월)
- 나. 야옹<고양이> {엄마가 “이건 뭐지?”라고 묻자 대답} (15개월)
- 다. 꿀꿀<돼지> {엄마가 책 속의 돼지를 가리키며 “애는 누구야?”라고 묻자 대답} (19개월)
- 르. 짹<닭> (19개월)
- 미. 어흥<사자> {엄마가 책 속의 사자를 가리키며 “애 누구지?”라고 묻자 대답} (23개월)
- 비. 붕,부웅부웅<자동차> {엄마가 “모 타구 가까?”라고 묻자 대답} (17,23개월)
- 스. 빙<비행기> {엄마가 비행기를 가리키며 “이건 뭐야?”라고 묻자 대답} (23개월)
- ㅇ. 뚜두두 <분무기> {엄마가 분무기를 가리키며 “이건 뭐야?”하고 묻자 대답}

(18개월)

ㄷ. 뽀뽀<신발> {엄마가 신발을 보며 “이건 뭐야?”하고 묻자 걸을 때 소리가 나는 특징을 들어 말함} (18개월)

ㅈ. 땡땡땡<스티커놀이책> {엄마에게 “땡땡땡 보까?”라며 스티커를 붙이며 노는 놀이책을 함께 보자고 제안} (20,23개월)

(9) ㄱ. 아 <하마> (20개월)

ㄴ. 짱총 <토끼> {엄마가 “누가 있지?”라고 묻자 대답} (23개월)

(8)은 소리 흉내말을 통하여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8ㄱ-ㄴ)의 경우는 동물의 울음소리인 의성어로 동물을 지칭하고 있다. (8ㄷ-ㄸ)의 경우는 인공물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를 통하여 해당 대상을 표현한 경우이다. 한편, (9)는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낸 의태어로 지시 대상을 의미하는 예이다. (9ㄱ)은 하마가 입을 벌리는 모습을 흉내낸 의태어로 하마를 대신하는 예이고, (9ㄴ)은 토끼가 뛰는 모습을 흉내낸 의태어로 토끼를 지칭하고 있다. (8), (9)의 예들은 가령 유아는 고양이와 고양이가 낸 소리를 아직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의미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환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위의 예를 보면 의성어로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의태어인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다. 동작이나 모양보다도 청각 자극을 지닌 단어들이 현저하게 빈번히 쓰이고 있다. 이는 태아 시기부터 엄마의 음성 등 외부세계의 소리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아들은 그에 대한 감각이 이미 민감하게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작 서술에도 의성 의태어의 사용 빈도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ㄱ. 붕<차 타다> {엄마가 “오빠 뭐하고 있어?”라는 질문에 차를 탔다는 것을 “오빠 붕-”으로 대답} (17개월)

ㄴ. 띵띵하다<전자렌지에 데우다> {“온자 띵 띵 띵아꺼야”라며 우유를 자



- 기 스스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겠다고 말함} (22개월)
- ㄷ. 쭈룩하다, 쉬하다<오줌누다> {“엄마 쭈룩해요, 네?”라며 오줌을 누자고 말함} (22개월/14,23개월)
- ㄹ. 뚜따뚜따·뚝뚝뚝<수리하다> {엄마가 “냉장고 고치는 아저씨가 뭐했어?”하고 묻자 대답} (21개월)
- ㄴ. 아야<맛다> {엄마가 “물 쏟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라고 묻자 <때린다>라는 의미로 “아야”하고 대답함} (15개월)
- 비. 잉잉<울다> {엄마가 “जू디 짐보리 가서 뭐 했어?”라고 묻자 ‘울었다’ 대신에 “잉잉”으로 대답함} (18개월)
- ㅅ. 끙하다<똥누다>{“엄마가 끙 해 조, 뽀뽀이 <엄마가 뽀뽀이 응가시키줘>”라며 엄마에게 인형 응가시킬 것을 요구} (23개월)
- (11) ㄱ. 빙글<춤추다> {“고양이가 어떻게 했다고?”라는 엄마의 물음에 대하여 “빙글”로서 ‘빙글빙글 돌며 춤춧어’를 대신함} (22개월)
- ㄴ. 쭈욱<그리다>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묻자 ‘쭈욱’이라는 의태 부사로서 동작을 설명함} (21개월)
- ㄷ. 쪽쪽하다<주무르다> {다리 등 몸을 주무르며 발화함. 평소 엄마는 다리나 팔을 잘 주물러주면 몸이 쪽쪽 퍼진다고 엄마가 아이의 몸을 주무를 때마다 ‘쪽쪽’이라고 하면서 주물러 주었음} (22개월)

(10)은 의성어로 동작을 표현한 예들이다. (10ㄱ-ㄴ)는 인공물이 동작을 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작을 표현한 경우이고, (10ㄷ-ㄹ)은 인간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소리를 통하여 동작을 표현한 경우이다. (10ㄱ-비)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이용하여 움직임 표현하고 있다. (11)의 경우는 의태어로 동작을 표현한 예들이다. 동작을 흉내낸 말로 해당 동작을 대신하고 있다.

위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동작 표현에도 사물어에 못지않게 소리나 크기, 모양의 느낌을 모방하는 표현들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일반적으로 ‘사랑하다’, ‘행복하다’, ‘성공하다’ 등의

10) 10개월에서부터 23개월까지의 남녀 아동 각 7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표본자료로 하

술어에 비해 ‘울다’는 상당히 구체성(concrete)을 가진 술어이다. 그러나 울음의 직접적 표현이 되는 소리 ‘잉잉’에 비할 때 ‘울다’는 그에 비해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¹⁾ 유아의 경우 ‘울었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을 (10)에서 제시한 예처럼 ‘잉잉’으로 대답하거나 ‘병아리’라고 대답해야 할 것을 ‘삐약삐약’이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그들의 사고가 더더욱 구상적, 구체적인 단계에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수리하다>나 <차타고 가다>처럼 다소간 추상성이 높은 술어에 대해서도 ‘뚜따뚜따.뚝뚝뚝뚝’이나 ‘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역시 관찰 대상이 가진 다양한 성질·자질 가운데 별다른 경험의 축적 없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소리와 모양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작을 표현하는 (10), (11)의 예를 보면 사물지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태어보다는 의성어의 사용 빈도가 높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아 시절부터 이미 발달을 시작한 감각기관이 청각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흉내말 가운데에는 “깡총”이나 “꿀꿀”과 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역력한 것이 있기도 하고 학습과 감정이입이 자연스레 뒤섞여 무엇이 먼저라고 언급하

여 각 흉내말의 출현빈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현 어휘 수	빈도수
흉내말	소리 흉내말	101 (75%)	279 (56%)
	모양 흉내말	33 (25%)	218 (44%)
계		134	497

개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소리 흉내말 빈도수	0	0	0	1	20	15	8	16	11	29	49	30	36	64	279
모양 흉내말 빈도수	0	0	0	0	18	0	2	2	3	17	24	27	57	68	218

11) 여기서 간단히 具象(具體, concrete)과 抽象을 구분하자면, ‘具象’은 개별적인 존재(개체)로서 사물이나 구체적 행위 자체가 가지는 현상적·개별적·실재적 성질을 말하고, ‘抽象’은 그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인 인간 전체나 책상 전체 또는 그것들의 공통성질인 인간성과 책상의 공통성질 등의 보편적 개념이 된다. 곧 특정성질이나 공통징표(共通徵表)로서 분리하고 골라내는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 추상인 것이다.

기 힘든 것들이 있는가하면 “띠띠띠할 거야(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거야)”처럼 아동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아가 독자적인 인상을 적용하여 만들어낸 표현의 경우는 ‘영>어응>어흥’처럼 운 좋게도 사회성을 얻은 형식과의 연계성이 쉽게 얻어지는 것도 있으나, 닭을 포함한 날개달린 모든 종에 대하여 ‘깹깹’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예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동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그들의 범주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¹²⁾

3.3. 기습득 단어 활용 표현법

기습득 단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지시하려는 노력도 유아 표현상의 특성이다. 유아는 지시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태가 가지는 의미자질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지각하는 일부 의미만을 바탕으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성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잘못된 사용으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¹³⁾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2) ㄱ. 사자 → 코끼리 (15개월)
- ㄴ. 닭 → 멧돼지 (21개월)
- ㄷ. 기린 → 얼룩말 (23개월)
- ㄹ. 개미 → 무당벌레 (23개월)
- ㅁ. 악어 → 하마 (23개월)
- ㅂ. 매미 → 지렁이 (23개월)
- ㅅ. 침 → 불¹⁴⁾ (23개월)

12) 반복은 지각과 인지, 기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흉내말(형태적 특성)이 형태면에서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아들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어찌보면 그것이 사회성을 전제로 하는 성인언어에서는 타당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아동의 인지·사용 차원에서는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성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인식은 아동의 언어적 표현을 바라보고 그에 상호작용하는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13) 가. 맘마 → 무 (15개월)
- 나. 빵 → 김밥 (20개월)
- 다. 우유 → 주스 (15개월)
- 르. 꿀 → 레몬 (23개월)
- (14) 가. 할머니 → 고모 (21개월)

(12)의 경우는 동물 관련 어휘들인데, 일정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기습득 어휘를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로 활용하고 있다. (12가)과 같이 코끼리를 보고 ‘사자’라고 지칭을 하는 경우이다. [맹수, 큰 짐승, 무서운 짐승, 네발 달린 짐승] 등의 유사성에 근거한 어휘 활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2나)의 기린을 얼룩말로 지칭한 것은 무늬나 색깔 등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12르-口)에서 무당벌레를 개미로, 하마를 악어로 지칭한 것은 곤충이나 늪지대 동물이 지니는 유사성에 근거한 결과라 여겨진다. (12나)에서 지렁이를 매미로 지칭한 것도 성인의 관점에서는 연관짓기 어려우나 유아의 관점에서는 무엇인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된다. (13)의 경우는 음식물 관련 어휘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유사성에 근거한 기습득 어휘 활용 표현의 예들이며, (14)의 친족어 관련 어휘의 경우에도 고모를 할머니라고 지칭한 것은 [모습, 친밀감] 등의 유사성에 기초한 표현법이라 판단된다.

유아들의 기억 장치에 보관된 의미자질의 수는 대상이 가진 속성에 견주어 상당히 적은 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어휘 가운데 적은 자질을 대입하여 낱말을 선택하기 때문에 유아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적용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보기엔 실수처럼 보이는 것이다. 대상의 특징적인 모양과 기능이 뭉뚱그려져 강한 인식을 남긴 결과 유아들은 특징이 되는 모양만 보면 기능이 같으리라고 생각하고는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자질의 미분화에서 비롯되어진다.¹⁵⁾ 유아들의 그러한 언어 사용은 기

14) 엄마가 “별은 여기 똥꼬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엄마가?”라고 묻자 “불”이라고 대답함.

존 언어세대와의 상호과정 속에서 자질 적용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단어 의미를 정교화해 나가게 된다.¹⁵⁾

이러한 현상은 사물 지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표현 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5) 가. 뜨겁다<덥다> {집안이 더울 때 유아가 “앗 뜨아[뜨거워]”라고 말하자 엄마는 “○○아-, 영 ○○이 땀 나”라고 응대함} (20개월)
- 나. 쓰다<그리다> {엄마가 “그림 그려봐 ○○가”라고 하자, “음마 썬 음마 썬 음마 썬[엄마가 그려 줘 엄마가 그려 줘]”라고 대답} (21개월)
- 다. 끼다<붙이다> {유아가 “끼어”라고 하자 엄마가 “낀 게 아니라 붙인 거야”라고 응대함} (22개월)

(15)에 제시한 예 역시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작을 표현한 예들이다. ‘덥다’라는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뜨겁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쓰다(글씨를 쓰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붙이다’의 의미를 ‘끼다’라는 용언을 통하여 전달하려 하고 있다. 동작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표현한 결과이다. 의미자질 인식의 미분화로 자질의 적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끼다’와 ‘붙이다’ 등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유아가 뭔가 두 사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라는 차원까지만 고려된 결과로 보여진다. 상호작용의 다양한 방식 가운데 과연 어떤 식의 접촉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의미자질의 미세한 적용이 일어난 구체동작에 대한 명칭은 모호한 채로 대충 무리지어 저장되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

15) 13-20개월 정도 된 유아의 경우 계산기를 전화기로 알고 계산기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경우는 필자가 관찰한 세 명의 아동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16) 단어의 의미 자질 확장은 의미자질 미비에 기인한 외연의 확대를 잠재우는 요소가 된다.

다.

지금까지 유아 표현의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유아 표현의 특징은 유아의 어휘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불충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처럼 불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유아의 표현법에서 창조적인 언어 습득 과정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K C I

4. 결론

유아들의 어휘부 특성은 보유하고 있는 어휘 수나 인식하여 적용하는 의미자질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도 적은데다가 그 낱말들에 대해서도 일부의 의미자질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대상이며 상황을 가리키다보니 자연스럽게 각 낱말의 외연은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미분화’로 정리될 수 있다.

의미의 미분화라는 어휘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유아의 표현법은 맥락의존 표현법, 소리·모양 표현법, 기습득 단어 활용 표현법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어휘의 의미자질 가운데 일부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의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으로서 어휘가 맥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어휘가 습득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떤 사물이나 동작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어 사물과 사태를 표현하는 일이 많다. 또 본인이 지각할 수 있는 수준의 일부의 의미자질에만 근거하여 범주를 적용하고 낱말을 사용하는 까닭에 성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잘못된 사용으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경우가 미분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언어 사용은 기존 언어세대와의 상호과정 속에서 자질 적용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단어 의미를 정교화해 나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3개월까지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단일어 중심의 분석이 되었으나 이 시기 이후의 유아어 발달 단계에서는 ‘애기차,’ ‘아빠차,’ ‘빙빙킵,’ ‘거짓말꽃’ 등의 창조적 낱말 결합 양상이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언어습득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외국 연구의 예에 의지하거나 한 두 대상자에게 국한된 자료에 머물지 않고 조금더 많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결과를 3개월 내지 6개월로 상세화하거나 남자 아동 대 여자 아동 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언어관찰 결과를 보다 단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의미자질의 미분 양상 역시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언어습득 과정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경안(1981),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 음운발달 및 어휘발달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사현(1981),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서설,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문미선 · 신호식 · 이민행(1999), 새로운 의미론, 한국문화사.
- 박남자 · 조인숙(2001), 유아의 구어발달에 관한 연구: 표현언어와 문장 이해력, 어휘력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2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박휴용(1994), 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배소영(1996),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대한음성학회지 7-1.
- 심재기 · 이기용 · 이정민(1996), 의미론서설, 집문당.
- 오미정(1998), 국어 원초어휘(primitive vocabulary) 선정에 관하여, 제115차 한국어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오미정(1999), 국어의 기초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신체>영역의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윤희수 · 임지룡 역(1993), 심리언어학, 경북대학교 출판부.
- 이상금 · 정세화 · 이은화(1973), 유아기 언어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 연구원 논총 제2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상금 · 주영희(1984), 유아기 언어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인간 발달 12.
- 이승복 · 한기선 (역)(1999), 언어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이승복 (역)(2002),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 이익환(1998),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이인섭(1986),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 · 박영신 · 김혜리 공역(2003),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 임지룡(1988),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장경희 · 김정선(2003), 유아의 요구 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 단계, 한국어 교육 제1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명원 · 나익주 (공역)(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 조명환(1996), 한국 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항범 (역)(1994), 의미분석론(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성분분석의 이론과 실제, 탑출판사.
- 하길중(2001), 언어습득과 발달, 국학자료원.

G. Frege(1975), "On Sense and Reference," in Davidson & Harman, eds.
J.S.Mill(1970), "Of Names," in Lehrer & Lehrer, eds.
Rudzka-Ostyn(1988),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장경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33-791
전화 번호: 02-2290-1134
전자 우편: changkh@hanyang.ac.kr

이준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43-760
전화 번호: 031-249-9113
전자 우편: joonheelee@hanmail.net

권우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33-791
전화 번호: 02-2290-1889
전자 우편: youzhen@chollian.net

K C I